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0년 8월 3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문의 : 지역경제총괄과 김경우 서기관(2110-5070), 박달 사무관(5592)	

시·도간 연계·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간 상생 시대 연다

- 광역경제권 연계·협력사업 사업시행자 최종 선정 -

□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**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본격 추진**된다.

○ 지식경제부는 이번 8.27일 개최된 선정위원회(위원장 : 지역경제정책관)를 통해 사업수행자 **204개 기관**을 최종 선정하였다.

□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MB정부의 모토인 **광역경제권 구축, 특성화된 지역발전, 지역간 협력·상생을 구현**하기 위해 실시되는 **대표적 지역사업** 중의 하나로

○ **산업·문화·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 사업에 530억원을 지원하며**

○ **2개 이상의 시도**에 소재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**컨소시엄을 대상**으로 **2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동 매칭을 통해 추진된다**

□ 이번 선정결과, 수도권 `**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**` 사업의 경우 평창군·함안군·제천시 등 **11개 기초지자체가 참여**하는 등,

○ 기초지자체 포함하여 과제당 **평균 3.7개의 지자체가 참여**하고 있으며,

○ **80개 기업, 39개 대학 등 총 204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**할 예정이다.

□ 지역간 연계협력의 유형을 보면

○ **광역권간 연계협력**에는 **7개 과제에 47개 기관**이, **광역권내 시도간**은 **16개 과제 129개 기관**이, **기초지자체간은 6개 과제 28개 기관**이 참여하고 있다.

□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은,

○ ‘본 사업을 통해 **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**함으로써 **지역간 상생의 새로운 전기**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**향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갈 예정이다’고 밝혔다.

〈연계협력 사업 사례〉

●**사업명** :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 부품소재 개발 사업

●**목적** : **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공정기술의 국산화 상용화**를 통한 **마그네슘 소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**

●**사업비** : 국비 2,300백만원, 지방비 922백만원, 민간 3,101백만원

●**참여지자체** : 강원도, 강릉시, 원주시, 인천시, 전라남도, 충청남도

●**연계협력 내용**

– **인천시·전남** : 마그네슘 금형·주조관련 인프라가 잘구축된 인천시와 마그네슘 부품 특화지역인 전남은 **휠 제조기술** 담당,

– **강원도·강릉시·원주시** : 풍부한 마그네슘 광물과 제련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**제련관련 공정개발**을 담당

– **충남** : 알루미늄 압출소재를 이용한 범퍼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**자동차 범퍼빔 개발**을 담당

